

“산소 부족 코로나 환자 사망은 집단학살 범죄”

인도 법원, 주정부 책임 질책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 박아”

뉴델리서만 산소 부족 40명 숨져
최근 2주간 1분에 2명꼴 사망

인도에서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를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코로나19 환자 2명의 사망과 관련, “의료용 액화

산소의 안정적 공급 책임을 맡은 자들에 의해 지행된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 법원은 2차 코로나 대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를 관장한다.

법원은 특히 의료용 산소의 매점 상황과 산소 부족을 호소하는 극빈층의 고통을 대비한 영상 자료를 인용하며 주정부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법원은 “산소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주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근 연방정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뉴델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라고 명령한 델리 고등법원도 이날 다시 정부에 관련 대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고 인도 NDTV는 보도했다. 인도에서

는 청원 심사 등과 관련한 법원의 명령이 법에 견줄 정도의 효력을 갖는다. 당파 간 대립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의회를 대신해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현실에 개입해온 전통 덕분이다.

델리 고등법원은 “지난 2주간 산소 부족과 관련한 수많은 청원이 제기됐다”며 공급량을 늘리라는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당신들은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를 박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는 산소 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 사망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며, 뉴델리에서만 환자 약 40명이 산소 부족으로 숨졌다.

코로나19 중환자들은 혈중 산소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저산소혈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소 치료가 필수인 경우가 많다. 이날 남부 카르나타카주의 병원 두 곳에서도 환자 7명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산소 부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NDTV는 보도했다.

당국은 산업을 의료용 산소로 돌리고 관련 생산 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고 있지만 산소 수요가 워낙 갑자기 폭발한 바람에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 CBS방송에 따르면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22만 2000여명 가운데 4분의 1인 5만 7000여명이 지난 한 달간 사망했다.

특히 최근 2주간 사망자를 집계해 보면 시간당 평균 120명으로 1분에 2명꼴로 코로나19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로마 도시에 등장한 피자 자판기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도시에 설치된 피자 자판기에서 한 여성이 완성된 피자를 꺼내고 있다. 자판기는 3분만에 반죽과 조미, 가열을 마치고 종이 박스에 담은 피자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열차 지날 때마다 고가 흔들”

예고됐던 멕시코 지하철 참사

사망자 24명으로...과실치사 수사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지하철 추락 사고는 ‘예고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무너진 고가철도를 두고 건설 직후부터 계속 위험 경고음이 나왔으나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검찰은 전날 발생한 지하철 12호선과 관련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아울러 클라우디아 세인바우 멕시코시티 시장은 노르웨이 업체가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국은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밤 10시 22분 멕시코시티 남동부 지하철 12호선 올리보스역 근처에서 발생한 고가철도 붕괴와 지하철 추락 사고로 지금까지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79명으로 각각 늘었다. 지하철이 고가를 지나는 순간 고가를 지지하던 기둥이 붕괴하며 벌어진 사고였다. 4일 오전 크레인 사고 객차 2량을 현장에서 들어냈고, 12호선 운행은 무기한 정지됐다. 멕시코시티 남부의 동서로 잇는 12호선은 멕시코시티 총 12개 지하철 노선 중 가장 최근인 2012년에 개통됐다.

개통 10년이 채 안 된 지하철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를 놓고 사고의 징후는 일찍부터 나타났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12호선의 이번 사고 구간 공사를 담당한 것은 멕시코 재벌 카를로스 슬림의 건설회사 CCICSA였으며,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교장관이 당시 멕시코시티 시장을 맡고 있었다. 개통 2년 만인 2014년 일부 구간에 문제가 발견됐고 당국은 이번에도 무너진 고가철도를 비롯한 여러 구간을 폐쇄한 채 보수 공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전승 기념식 리허설 마치고 복귀하는 러시아 전차 행렬 러시아군의 T-34 전차들이 4일(현지시간) 전승 기념 퍼레이드의 리허설을 마치고 성 바실리 대성당 앞의 교량을 지나고 있다. 러시아군은 오는 9일 2차대전 승전 76주년을 축하하는 퍼레이드를 모스크바의 붉은광장 일대에서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미, 대만에 반도체 우선공급 압박...산업계 곳곳 비상

상무장관, 경제단체 간담회

“미국내 생산 비용 30%까지 올려야”

미국이 심각한 반도체 공급난 타개를 위해 대만을 상대로 미국에 우선 공급하라고 압박했다.

블룸버그와 AFP 등에 따르면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경제 단체 화상 간담회에서 “TSMC를 비롯한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 자동차 업체에 우선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하루도 압박을 멈춘 날이 없다”고 까지 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포함해 대만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이 매우 크다. 미국은 물론 주요 선진국에서도 핵심 반도체 공급을 놓고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 예상 밖으로 경기가 빠르게 살아나며 자동차를 비롯한 미국의 산업계는 심각한 반도체 공급 부족에 시달려 왔다. 포드가 2분기 생산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롯해 디트로이트의 주요 자동차 업체가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게임 콘솔과 태블릿 등 전자제품 생산 역시 불안하다고 AFP는 지적했다. 여기에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까지 더해지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반도체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으로 끌어 올려 대응하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특히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 복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러만도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현재 미국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율은 0%인데, 수요에 맞추기 위해선 이 비율을 3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며 “공

급망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반도체 산업 자율성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 오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3일 백악관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 IT와 자동차 등 19개 글로벌 기업을 소집해 직접 ‘반도체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 의지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같은 달 28일 열린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도 “첨단 배터리, 바이오 테크놀로지, 컴퓨터 칩, 청정 에너지 등 미래의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지배해야 한다”며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의 지난해 9월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37%를 차지했던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은 12%까지 줄어든 상태다. /연합뉴스

오피스텔 신축 부지

- ▶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156평, 일반상업지역
- ▶ 지하1층 지상9층, 47㎡, 64호실
- ▶ 임대/분양 100% 최고 장소
- ▶ PF 28억 가능, 허가 득
- ▶ 매매 - 협의

월세660만원 고정 수입

- ▶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 ▶ 6층중 4층 전체, 240평
- ▶ 메리츠증권회사 임대 중
- ▶ 3면이 바다 전경, 뷰 좋음
- ▶ 용자 6억8000만원 있음
- ▶ 회사사정상 급매, 15억 → 13억

거문도, 싹땅

-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 ▶ 대지 50 ~ 400평씩 매매
- ▶ 펜션, 주택, 별장부지
- ▶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 ▶ 근접땅 경매로 50만원 낙찰
- ▶ 급매 - 평당 30만원씩

제일오피스텔

-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 20층 중 8층, 코너, 전망 좋음
- ▶ 계 108㎡, 분양 67㎡, 사무실 전용
- ▶ 즉시 입주 가, 주차 2대 무료
- ▶ 임대, 보1천에 월50만 가능
- ▶ 매매 - 1억1000만원(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